

2007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김은정(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서론
2. 2007년도 한문학 분야 논저
2.1. 단행본
2.2. 학위논문
2.3. 학술지 논문
3. 논쟁의 접점과 제안
3.1. 주제와 타자
3.2. 글쓰기, 언어, 번역
3.3. 연구영역의 확대
4. 맺으며

1. 서론

국문학회에서는 1997년도부터 매년 전년도의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연구 동향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한문학 분야에 국한하여 그간 연구 동향을 점검한 글들을 살펴니, 90년대 후반 이후 연구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논문 발표 지면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연구 논문의 수준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문학 전공의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연구 논저가 비슷한 동향을 지니는 것 같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분명 시기마다 ‘연구 동향’이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한 ‘연구 동향’이 다년간 지속되면서 연구 내용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과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도 한문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정리하는 이 글 역시 한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

면서 연구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한문학 분야는 그 아래에 한시·한문산문·한문비평·한문소설·비교문학 등의 수많은 하위 연구 분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대의 문화현상 역시 한문학 연구의 범위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는 필자가 전혀 문외한인 연구 분야도 있어 한문학 분야 전체를 통섭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예년의 연구 동향 점검 논문의 경우와 같이 연구논저의 발표 형식에 따라 개괄을 한 다음,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몇 가지 설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2007년도에는 논쟁의 와중에 있는 논제와 관련된 단행본과 연구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기에 그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는 필자 스스로가 연구자로서 연구 방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연구 논저를 정리할 때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였는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각 대학의 도서관 사이트와 ‘한국학술정보’, ‘동방미디어’, ‘누리미디어’, ‘학술교육원’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2. 2007년도 한문학 분야 논저

2.1. 단행본

2007년도에도 많은 한문학 관련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역주서·번역서

자료의 번역·역주서는 매년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국문학회의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검토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번역·역주서가 아니라, 역주자의 시각이 투영된 저서가 있어 간과할 수 없으므로 우선 살펴 보겠다.

강명관의 『농암잡지평석』은 金昌協의 「農巖雜識 外篇」에 대한 역주서로서, 번역문/원문/주석의 순서로 글을 배치하였다. 가장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저자 스스로가 밝혔듯이 ‘註解’의 형식을 띠고 있는 ‘주석’이다. 그래서 146칙의 짧은 글로 이루어진 「농암잡지 외편」에 대한 역주서가 69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가 되었다. 특히 통상의 역주서와 달리 저자 자신의 주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주석 부분은 조선후기 한문학의 흐름을 꿰뚫는 저자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2007년도에 발표된 저자의 또다른 저서들과 맥을 같이 한다.

김명호의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는 燕巖 산문 선집으로, 기왕에 발표되었던 수많은 연암 산문 선집과의 차별성으로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 현대 독자의 가독성’을 모두 고려한 점을 들었다. 이에 ‘현대적인 제목·이해하기 쉬운 주석’으로 연암 산문을 해설하였고, ‘원문과 주석을 포함하여 인명과 사항에 대한 해설·연암 박지원의 삶과 문학’을 부록으로 첨가하였다. 박희병 외의 『연암산문 정독: 譯註·考異·輯評』은 또다른 연암 산문 선집인데, 연암산문의 한 구 한 구에 일일이 역주를 붙이고, 기왕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역주 작업과 비교하였으며, 그 작품에 대한 제가의 평을 모은 것이다. 김명호의 역주집이 연암 연구자로서의 애정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박희병 외의 역주집은 연암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희병·정길수 편역의 『천년의 우리소설』 시리즈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한국한문소설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번역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국 고전소설을 흥미롭게 풀어쓴 책이다.

심경호의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은 조선의 명산을 유람하고 지은 여러 문인들의 유산록을 선발하여 번역하고 해설을 붙인 책이다. 저자는 이미 2006년도에 『한시기행』을 발표한바, 이 책은 그 자매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옛 조상들이 행했던 산천 유람의 진정한 의미를 논하고 있다. 또한 각 산문에 어울리는 뛰어난 산수화와 지도 70여 점을 선별하여 올 컬러로 실음으로써 원문의 감동과 깊이를 더했으며 조선 산수화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부록으로 선인들이 여행할 때 사용한 교통수단과

옷차림, 비상식량의 구비, 선비들이 사용했던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시 관련 역주서·번역서 역시 다수 발표되었다. 이 중 윤호진 번역의 『한시로 읽는 세시풍속』 시리즈, 김갑기의 『한시로 읽는 우리 문학사』, 이창룡의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남도의 시정』은 현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주제에 따라 한시를 분류하고 번역한 것이다. 반면, 이장우·정세후의 『퇴계시 풀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퇴계시에 역주를 붙인 다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외에도 허난설헌 한시에 대한 번역서가 있다.

이상의 역주서·번역서를 살펴 보면, 그간 한문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었던 ‘대중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산문 분야에서 그러한 성과물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앞으로 한시 연구자들도 현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한시 본연의 미감과 연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번역·역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기존 논문의 수정·보완

연구자라면 누구나 기왕의 공부 결과물로서의 논문을 정리하고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학위 취득을 위해 정해진 일정과 형식에 맞춰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충분히 논문에 담아 내지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미숙한 논의를 그대로 신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단행본이 다수 출판되는데, 2007년도에는 김경미(1991년 연세대 박사논문)와 성당계(2004년 성균관대 박사논문)의 저서만이 있어 예년에 비해 그 양이 적은 편이다.

반면, 백원철의 『한국학 탐구의 시각』의 경우는 연구자가 다년간에 걸쳐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정리하여 출판한 저작이다. 이러한 논문 모음집 중에 강명관과 정민의 저서가 주목을 끈다. 강명관의 『안쪽과 바깥쪽』은 16세기 말 이래 조선의 한문학 또는 사

상이 明代의 그것과 맺는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핀 논문을 모은 저서이다. 정민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은 18세기 학회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던 논문을 정리한 것으로, 18세기 지식인의 ‘지식, 자아, 글쓰기, 감각·취미’ 등을 문화사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공동 연구로 진행된 연구 사업을 정리하는 논문집도 나왔다. 김진곤 외의 『고려시대의 문인과 승려』는 ‘고려시대’라는 시기, 특히 ‘문인과 승려’라는 특수한 주제를 다룬 5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문학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시기와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병련 외의 『잠곡 김육 연구』는 金堉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는데, 정치·경제·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각기 기술한 논문을 실고 있다. 전통시대의 문인이 문학가로서뿐만 아니라 經世家로서도 활동한 예가 많으므로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해당 문인의 여러 면모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 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진재교 외의 『충돌과 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또다른 학제간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중국·일본·러시아의 근대전환기의 한국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인식과 대외인식’, ‘상호인식’, ‘충돌·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의 3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동아시아 3국과 조선의 근대 지식인의 상호인식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3) 민족주의 비판, 탈근대주의 지향

2007년도에 가장 왕성한 저술 활동을 보인 연구자는 단연 강명관일 것이다. 이미 소개한 『농암잡지 평석』과 『안쪽과 바깥쪽』 외에도 『공안과와 조선후기 한문학』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이다. 저자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지니고 관련 자료를 두루 살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서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

로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는 각각 조선후기 한문학사와 근대 국문학 연구사에 관한 논의이다.

『공안파』는 조선후기 한문학에서의 公安派의 수용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이다. 저자는 공안파와 陽明學을 비롯하여 秦漢古文派, 唐宋派, 竟陵派 등의 전후 문학사의 흐름까지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고찰하였는데, 여기에 열거된 문인은 허균으로부터 박지원·이옥에 이른다. 그 결과 18세기의 ‘天機·眞詩’는 물론 박지원의 ‘冥心·嬰兒’ 등의 독창적 문학 사상이 모두 공안파에서 유래하였다고 결론 지었다.

『국문학』은 저자의 문제의식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보여준다. 그는 한국한문학이 국문학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던 시기가 있었던 점을 들면서, 국문학 연구가 민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근대를 예비하였다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국문학 분야에서 민족주의와 '근대'가 국문학을 어떻게 구성하고 서술을 강제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문학사의 민족과 근대 찾기가 쓸모없을 뿐더러 유해하기까지 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시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국문학사를 비판한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상상된 근대와 민족이라는 코드를 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강명관은 이러한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학계의 영향이 지대하다. 이는 곧 연구 동향을 주도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4) 기타 교양서

전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서는 학문 연구의 또다른 결과물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저서들이 다수 나왔는데, 2007년도에도 그러한 동향이 지속되었다.

임형택의 『우리 고전을 찾아서』와 강명관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가 그것이다. 임형택의 저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박지

원의 『열하일기』, 정약용의 『목민심서』, 황현의 『매천야록』 등은 물론이고, 권현의 『진명집』, 심대윤의 『심대윤전집』, 이복휴의 『한남집』 등 이름조차 낯선 우리의 고전을 소개하였다. 또한 개인뿐 아니라 가문의 유산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잊혀진 유산은 재발굴하고, 잘 알려진 고전의 의미는 새롭게 인식하고자 했다.

강명관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는 조선시대 서책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저술이다. 일견 ‘서적왕국’이라 불리는 조선왕조의 출판 기술과 문화에 대한 예찬이 있을 듯도 하지만, 강명관의 여타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특유의 비판의식이 곳곳에 담겨 있다. 특히 서구보다 200년이나 앞섰다는 금속활자 기술의 혜택이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베풀어지지 않았던 당시 주류층의 서적 독점 현상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저자는 李滉과 李珣의 독서경향과 학문적 성과를 그들이 읽은 朱子書로서 설명하면서 조선의 학계가 性理學의 바다에 함몰된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淸의 유리창에서 서적을 구입하는데 열을 올렸던 조선의 지식인들과 그렇게 수입된 서적의 사상적 불온성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이를 규제하려 하였던 정조의 정책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예리한 비판의 시각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정민과 안대회는 지속적으로 18세기의 문학과 문화현상을 알기 쉽게 풀어 써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 정민의 『다산어록청상』은 정약용의 삶의 자세 전반에 관한 성찰과 관련된 글을 ‘경제·수신·처사·치학·독서·문예·학문·거가·치산·경제’ 10항목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안대회는 전통시대의 일반적인 선비의 상과 특별한 분야에 일가를 이루었던 전문가를 나누어 각각 책으로 엮어 『선비답게 산다는 것』과 『조선의 프로페셔널: 자신이 믿는 한 가지 일에 조건 없이 도전한 사람들』로 발표하였다. 저자는 고려시대의 이규보부터 19세기 박규수까지 선비로 살아갔던 인물들의 행적을 인생·취미·글쓰기·공부에 따라 분류하였고, 여행가·바둑기사·화가·조각가·무용가·책장수·원예가·천민시인·음악가·과학기술자 등의 조선의 전문가들이 보였던 ‘癖·狂·懶·痴·傲’를 보여주었다.

2.2. 학위논문

필자가 확인한바 2007년도에는 박사학위논문 22편, 석사학위논문 40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편이 발표되었다. 그 편수가 박사논문은 예년과 같았으나, 석사논문은 약간 적었다.

박사논문은 대부분 작가론의 형식을 띤 경우가 많았으나 그 내용은 다양하다. 우선 전통적인 작가론의 형식을 띤 것으로 「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 : 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최윤정, 이화여대) 「혜환 이용휴의 문학 연구」(박동욱, 성균관대)가 있다. 전자는 사상가로서 연구되어 왔던 박세당의 문학을 그의 사상과 연관지어 논의한 것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박세당 문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근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용휴에 대한 또 한편의 논문으로서, 기왕의 논의와 달리 시와 문을 모두 아울러 다룬 점에서 의의가 있다. 「沈瀧 洪吉周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이홍식, 한양대)는 19세기 京華世族의 중심인물인 홍길주의 세계인식을 ‘中原’으로 파악하고 문학적 지향을 연구하였다.

한시 중심의 논문을 검토하면 詩名이 높은 작가이지만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는 논문이 많았다. 「東岳 李安訥의 한시 연구」(구본현, 서울대)는 이안눌 한시가 이룩한 형식적·내용적 문예미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한시 학습·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紫霞詩 연구」(이현일, 성균관대)는 申緯의 저작을 정리하여 定本을 확정할 토대를 마련하고, 19세기 京華世族의 대표주자로서 신위를 파악하여 그 생활상과 이를 반영한 시세계를 탐구하였다.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는 漢文四大家로서가 아니라 한시 작가로서의 李植과 『澤風堂批解』를 연구한 논문으로서 조선의 杜詩 학습과 해석의 일단을 알려준다.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박경신, 성신여대)와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최종호, 영남대)는 문인·정치가로서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이이와 유성룡을 연구한 논문이다. 「다산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변모양상」(김봉남, 고려대)는 정약용의 시를 생애에 따라 고찰하여 내면의식의 변모과정을 따라갔다.

한문산문 중심의 논문 가운데 산문 작품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가 있다.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김소영, 성균관대)와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서한석, 성균관대)는 각각 『매천야록』 외의 황현 산문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고, 한정된 주제가 아니라 이항복 산문 전반에 걸친 고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洪大容의 燕行錄 研究」(정훈식, 부산대)는 홍대용의 한글과 한문 연행록을 함께 살폈다.

한편, 한문 비평에 관한 연구논문도 여럿이 발표되었다. 「조선후기 문인들의 前後七子에 대한 대응 양상 연구」(이병순, 단국대)는 16세기 이후 조선에 전후칠자의 복고이론이 소개된 이후 각 시기별로 조선의 문학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고찰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복고이론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각 유파가 나뉘고 그 문학적 지향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秦漢派는 法古를, 唐宋派는 辭達을, 小品派는 眞의 문학을 추구하였다고 파악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의 논문으로 「도곡 이의현 산문비평의 연원에 대한 연구」(민복기, 부산대)를 들 수 있다. 그간 비평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인용되는 이의현 산문비평의 연원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핀 연구이다. 이의현의 문학사상은 국내적으로는 허균으로부터 시작하여 김창협(1781~1848)의 문학론에 입각한 것이며, 국외적으로는 전후칠자와 공안파, 경릉파의 문학이론을 수용하였다는 내용이다. 「18세기 農巖系 文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 雪橋 安錫徽를 중심으로」(윤지훈, 성균관대)는 안석경의 문학론과 『雪橋 藝學錄』에서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문화사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17세기 문인들의 趣의 구현과 서화금석에 대한 관심」(신영주, 성균관대)은 기존에 18세기 京華士族의 문예취미를 자주 언급하였는데, 그 맥아가 17세기의 문인들의 趣의 변화에서 태동하였다는 주제를 여러 서화금석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내었다.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황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는 대표적인 문예취미인 ‘서화수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서화수장이

조선중기에는 종친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대부의 참여 또한 대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논문은 문화사적으로 왕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바, 앞으로 왕실, 왕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외에 「16세기 식영정 시단의 시세계 연구」(권혁명, 고려대)와 「조선시대 제주 관련 한시의 연구」(부영근, 영남대)는 지역을 주제로 삼은 논문인데, 전자는 호남시단을 다시 하위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후자는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을 소재로 한 한시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남 이복휴의 역사의식과 역사산문」(김형섭, 성균관대)은 <海東樂府>의 저자로서 이복휴의 역사의식을 고찰하고 그 문학적 성과를 살폈다. 한문학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최송설당 문학연구」(김중순, 한성대)은 구한말 왕실 여인의 문학을 살핀 내용이다. 「근대계몽기 잡지의 국한문체 연구」(임상식, 고려대)은 한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국어학과 현대문학 영역에서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박사논문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18세기 이후여서, 16,7세기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세기는 한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국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이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있어 왔던 현상인데, 특히 한문학 분야에서는 18세기 이후의 작가 중에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하고,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연구 대상이 많기도 한 까닭에, 비단 학위논문 뿐 아니라 연구논문이 18세기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다만 근년에 17세기를 주목하는 논문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18세기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연구이던 것이 점차 17세기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학위논문에서 그러한 변화를 살필 수가 있었는데, 유성룡, 이안눌, 이석, 이항복, 박세당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다시 17세기 문인의 취미와 문학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석사학위논문 역시 작가론의 형식을 띤 것이 대부분인데, 특별히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다수 있었다. 「許穆과 荻生徂徠의 尙古主義 문학사상 비교연구」(이효원, 서울대), 「『포의교집』에 나타나는 근대성 연구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와 연관하여」(조승애, 단국대),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과 오경재의 『회주부열부순부』 비교연구」(조호, 한남대)가 그것이다. 이효원의 논문은 擬古主義를 문예사조가 아닌 사상·미학·학문의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친 전근대 동아시아의 지적 운동으로 파악하였는데, 각기 처지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許穆은 육경고문의 사상을 중시하는 상고주의의 사상을, 일본의 오규 소라이는 육경의 수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古文辭學을 창시하였다고 보았고, 다시 그 영향관계까지 살폈다. 이 논문은 ‘의고주의’의 의미를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조승애는 『포의교집』의 초옥의 성격을 『산시로』의 미네코와 비교하여서 근대적 여성성을 강조하였는데, 미네코와 초옥이 처한 일본과 조선의 처지가 다르기에 비교의 관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듯하다. 조호의 논문 역시 조선의 열녀함양박씨와 중국의 회주부열부를 단순비교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한문학 작가 외의 지방 유림을 발굴한 논문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진정국사의 『호산록』에 대한 연구」(박혜승, 성균관대), 「사명당 시에 나타난 삼교회통적 사유」(조만식, 경상대), 「한국 寺刹題詠詩의 一局面 - 三寶寺刹의 경우」(안제인, 동국대) 등의 불교와 승려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었다.

2.3. 학술지 논문

학계의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해서 학술지의 특집·기획주제 논문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요긴한 방법일 것이다. 2007년도에도 학회마다 기획주제 또는 특집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에 그 논문을 싣고 있는데, 기획주제도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학술지	발행기관	기획주제·특집
『고전문학연구』 31	고전문학회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한국고전문학에서의 주제와 타자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남명학연구』 24	경상대 남명학연구 소	16세기 南冥學派의 程朱學 수용양상
『대동문화연구』 59	성균관대 대동문 화연구원	근대어의 형성과 한국문학의 언어적 정체성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 대동문 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원 50년의 학술연구 성과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한국한문학과 고구려·발해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18세기 실학에서의 영재 유득공의 위상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생육신과 사육신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1]중세 라틴어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의 이중 언어와 문화 [2]한국한시의 특징과 전개(1)
『동양한문학』 24	동양한문학회	[1]한문학과 일상 [2]초기 사람과의 제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18세기 소론계 학통의 다각적 조명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淵民學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남학』 11	경북대 영남문화 연구원	深齋 曹兢燮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 제주문화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東國文獻備考』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 학회	조선후기 불교와 문학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 학회	조선후기 한문학의 새로운 경향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회	지방화와 한문학
『한국한문학연구』 40	한국한문학회	西厓先生 逝去 400周年 紀念 學術大會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18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生活과 空間에서의 漢文學

이 가운데 예년의 연구동향을 이어받은 주제로 지역학과 일상을 들 수 있다. 특히 한문학회의 <지방화와 한문학>에서는 기왕의 지역학을 반성하

는 논의가 있었다. 즉 이종호의 「지역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안동지역을 중심으로」와 정만호의 「地域 漢文學 研究의 實相과 問題點」이 그것이다. 이종호는 지역 한문학 연구를 위해 한문강독, 국학이론, 현장실습을 나누어 진행할 것과 그 결과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만호는 미시적 연구, 미발굴 자료 수집, 학제간 연구 외에도, 기왕의 연구가 인력과 재원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학 연구의 중심기관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논의는 실용성이 학문의 목적이 될 수 없지만 학문의 효용성 가운데 하나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외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계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제는 문학의 일상성일 것인데, 2007년도에는 일상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한문학회에서 <생활과 空間에서의 漢文學>에서 이지양의 「17세기 조선의 한문학에 나타난 음악과 무용 풍속」, 안대희의 「조선후기 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신영주의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획 활동과 계획도축」, 김남기의 「여행을 통한 山水와 生活 空間의 認識」, 김철범의 「조선 지식인들의 諸子書 독서와 수용양상」은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의 음악·무용·잔치·그림·주거공간·여행 등을 살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성의 연구에 대한 의의를 반성하는 논의가 있었다. 동양한문학회의 <한문학과 일상>에 발표한 백승종의 「한문학과 미시사의 풍요로운 만남」이 그것이다. 백승종은 한문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저작들이 미시사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로 소외된 지식인·여성·왕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내면을 파헤쳤다는 점, 공식기록과 사적 기록을 조직하여 조선시대의 일상을 복원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한문학자가 역사학자보다 미시사 연구에 더 적합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문학자들의 일상 연구는 진정한 일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한문학자들이 복원해낸 조선시대의 인물들은 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당시의 일상이란 오히려 가혹하고 준엄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문학 분야의 일상 연구는 사물의 중층성 파악, 무묘한 일상에 담긴 생

존전락 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시사적인 기획주제로는 대동한문학회의 <한국한문학과 고구려·발해>가 눈에 띈다. 이 주제는 중국의 ‘東北工程’에 대한 한문학계의 대응으로서 설정되었는데, 이동환의 기초강연을 접하면, 그 대응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고구려와 발해의 한문학 자료가 영성하다는 점, 그나마 있는 자료도 외교문서나 비문과 같은 형식이어서 고대사회에서 한문학의 공용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발해 문학의 中原문화 수용이라는 주제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동환은 역사학의 범주에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동북아의 전 민족의 역사와 문학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근거로 『삼국유사』 『단군본기』 『제왕운기』 등의 역사서를 꼽으면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모화주의로 인해 우리의 강역과 역사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그 제안은 실현여부를 떠나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같은 실학자의 역사서를 앞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학회의 <18세기 실학에서의 영재 유득공의 위상>은 실학자 柳得恭을 주제로 유득공의 다양한 학문과 문학세계를 다루었다. 박철상의 「조선 金石學史에서 柳得恭의 위상」은 유득공이 書法의 전범이나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연구의 보조자료로 초보적인 금석문을 연구하여 秋史 金正禧를 있게 한 토대를 열었다고 하였다. 또 나경수의 「영재 유득공 『경도잡지』의 민속문화론적 가치」, 이경수의 「冷齋 柳得恭 詩의 神韻風과 考證學的 傾向」, 김윤조의 「『古芸堂筆記』 연구」는 전통문화의 자주성·정통성 강조, 清代 시풍의 수용, 고증학적 학문과 저술활동을 각각 살폈다. 그런데 이 기획 주제가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정진현의 「영재 유득공의 역사의식」에서 유득공의 『발해고』가 최초로 남북국시대를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그러하다. 앞서의 이동환의 기초연설을 참조하면, 유득공이야말로 조선시대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회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18세기를 주제로 한 특집이 여럿 있었다. 한국한시학회의 <18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는 18세기 한시의 미적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李秉淵·李用休·李彦瑱·李德懋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웃음, 파격적 구성, 주제와 조직, 奇詭尖新的 미학을 살펴 보았다. 민족문학사학회의 <18세기 소론계 학통의 다각적 조명>은 동시기 다른 집단과 달리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였던 소론계 학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김동준의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은 국어학, 장유승의 「李種徽의 自國史 인식과 小中華主義」는 역사학, 이현일의 「李匡呂의 實心實學과 經世學」은 강화학과의 經世學, 윤재환의 「소론계 시문학 경향의 계승과 변모: 椒園 李忠翊家の 시세계를 중심으로」는 강화학파 가문의 시문학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 주제는 한문학 연구자들이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국어학·역사학·경제학 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문학 연구방법으로 인물별 고찰이 있는데, 한국한문학회의 <西厓 柳成龍 서거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경북대 영남문화원의 <深齋 曹兢燮>, 동방한문학회의 <사육신과 생육신> 등이 있다. 반면에 한국어문학연구학회의 <조선후기 불교와 문학>은 문학 분야에서 관심이 덜한 불교를 주제로 잡아 고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주제·특집에 실린 논문들을 읽다 보면 과연 주제를 제대로 살려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는 주제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문 상호간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국문학회의 <한국고전문학에서의 주제와 타자>라는 주제에 하에 실린 고전소설·고전시가·구비문학·한문학 논문은 각각 여성영웅의 주제화 과정, 주제담론을 통한 우리말 시가 이해, 문학 감상에서의 주체의 역할, 작품 내의 주제와 타자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자유로운 논의에 앞서 기획 주제의 방향성이나 의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보다 통일된 논의가 이루어져 기획주제를 설정한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논문은 그 수도 많고 주제도 다양하여 일정한 분류가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홍길주와 「숙수념」에 대한 논의가 유난히 많았다. 최식의 「홍길주의 실험적 글쓰기」(『東洋漢文學研究』25)·고중학과 홍길주의 <擬發策> (『한문학보』16)·홍길주의 꿈과 『孰遂念』(『고전문학

연구』31), 최원경의 『孰遂念』 연구의 한 시각』(『한국어문학연구』49), 박무영의 『孰遂念』의 공간 설계와 문학적 사유 (『동방한문학』33)가 있고, 김명호의 朴珪壽의 『孰遂念行』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40)도 작가와 작품은 다르지만 홍길주의 「숙수념」 과의 상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논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공개이던 홍길주의 문집이 근자에 공개되고 번역된 것과도 관련된 것이겠으나, 홍길주의 문학과 사상이 요즘에 특별히 의의가 있는 점을 연구자 스스로도 밝혀야 할 것이다.

3. 논쟁의 점검과 제안

3.1. 주체와 타자

앞장의 단행본 검토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강명관은 2007년도에 5권의 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저자의 평소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근대성, 민족, 내재적 발전론’ 등을 강하게 비판해 왔었다. 이 때 강명관이 내세운 주체가 바로 ‘주체와 타자’이다. 여기서 주체란 조선, 내지 우리 민족을 일컫고 타자는 곧 조선이 아닌 외부 특히 明·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주체적인 요소들이 결국에는 타자의 것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강명관의 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으나, 부지런히 자료를 찾아 근거를 제시하는 그의 열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김우정의 「선조·광해 연간 文風의 변화와 그 의미 : 前後七子 수용 논의의 반성적 고찰을 겸하여」 (『한국한문학연구』 39)에서 윤근수에서 시작된 전후칠자의 복고이론 수용의 실상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즉 윤근수가 복고이론을 소개하여 조선 문단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파천황의 꿈’이 있으나, 실제로 진한고문파라고 불리는 윤근수·최립 등의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진한고문파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새로운 문예사조를 소개하였다고 곧 그 유포를 형성한 것은 아님을 언급한 것이다.

김대중은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대동문화연구』 60)에서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논문은 문헌학적 접근, 비교론적 접근, 유포적·영향사적 접근으로 김영진, 노경희 등의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를 비판하였지만, 그 공격의 화살은 강명관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그는 강명관이 16·7세기의 문인들은 진한고문파, 18세기의 문인들은 공안파의 영향하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포 확인 강박증”이라고 비판의 날의 세웠다. 그는 근대주의에 기초를 둔 선행연구와 정반대로 중국의 영향을 일면적이면서도 단선적으로 강조한 점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문학의 주체성을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이나 역사의식의 약화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피상적인 유사성이 전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체의 ‘타자 인식, 창의력, 주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중은 결론적으로 ①기초조사 없는 비교 연구는 공소하므로 명칭 문학과 관련해 실증적·문헌학적 업적이 꾸준히 요망되고, ②명칭 문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③비교를 통해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④명칭문학과 조선문학 비교를 위한 동아시아적 시좌를 확보할 것, ⑤동아시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밝힐 것 등을 제안하였다.

김대중의 이 논문은 다소 거칠기는 하나 ‘주체와 타자’라는 주제의 논문을 접하면서 느끼던 불편함의 실체를 밝혀주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의 제안 또한 일정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의 비판과 같이 공소한 비교연구가 되지 않기 위해 ‘타자’인 명칭 문학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데, 그것이 비판을 제기한다고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강명관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조선시대 명칭문학의 수용이라는 사실을 문헌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상적 유사성으로 해명하였었고, 그 점이 비판의 요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서기 위해서는 왕세정을 위시한 명칭 문학가들의 실제 작품을 면밀히 읽는 작업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몇몇 소장 연구자 그룹에서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체와 타자’를 논할 때 작품 자체를 통한 비교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3.2. 글쓰기, 언어, 번역

2007년도에는 논문 제목으로 ‘글쓰기’를 표방하거나, 논문 내용에 ‘글쓰기’를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다. 이는 각 대학 학부의 교양과목에 <글쓰기> 강좌가 증가하고, 대학입학 시험에서 논술의 비중을 무시 못하는 세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식의 「홍길주의 실험적 글쓰기」(『東洋漢文學研究』 25)는 홍길주가 『장자』의 수법을 원용하여 다양한 글을 썼고, 『大學』과 같은 經傳의 체제마저도 빌어와 글을 쓰고는 ‘경전’이라 명명하는 등 기존의 권위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글쓰기 행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홍길주는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발견하였고, ‘나의 문장’이 곧 문장의 中原이라는 中原文章中原論의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홍길주가 기존의 글쓰기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글쓰기를 모색하고 예와 그 논거를 밝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논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문 중에는 ‘글쓰기’를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편장 구조’, ‘서술 원리’ 등의 전통적인 문학 용어를 써도 무방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논문이 더 많은 듯하다. 시대가 변하여 새로운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취해진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이목을 끄는 제목이나 서술로 독자를 끌어들었다가 그가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는 큰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를 가려쓰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자기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전통시대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漢文이라는 공동문어와 자국어문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체계(Diaglosia)를 가지고 있었다. 즉 표현할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 셈인데, 실상 공동문어인 한문이 우위에 있으면서 공식적인 문자행위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자국어문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체계가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중목의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sia)」(『震檀學報』 104)는 그러한 현상을 문학 학습서의 표기 방법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번역서의 표기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선초기에는 한문이 우선이고 한글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가, 이후 점차 일반 대중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서를 중심으로 한문 원문 자체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번역문의 한글 전용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한글이 여성의 공식문자로 인정되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문자 행위도 한글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왕실 여성은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된 역사서나 여행기를 읽고 거기에 수록된 수많은 한시를 한글로 된 원문과 번역문으로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사대부가 아닌 여성과 아동의 한시·한문의 향유 방식에 대한 고찰이지만, 그 논의된 바로 조선후기의 판소리와 같은 민중 예술에 수많은 한시문이 인용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전통시대의 문학과 예술의 향유 방식과 소비 형태를 알게 해 준다. 특히 국어학 분야에서만 연구되었던 諺解書를 연구 자료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 점은 학제간 연구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문과 자국어문의 이중언어체계는 비단 옛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밀접한 문제이다. 비록 현대의 공식언어가 한글이기는 하지만, 현대어휘의 80% 이상이 한자어휘이며 여전히 한문문화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문·한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언어체계의 고민을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느끼는 바이다. 즉 한문 원문을 어떻게 현대어로 번역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동준의 「번역학 관점에서의 한국한문문학작품 번역 재론 - 한시의 번역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46)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동준은 이외에도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민족문학사연구』 35)를 발표하여 국어학 분야로 관심을 확대한 바 있었는데,

한문학 전공자로서 ‘번역학’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는 우선 현대 연구자들의 한문문학 작품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검토하였다. 한국 한문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한시원문의 장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번역을 옹호하는 부류가 있고, 이와 반대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고문헌의 현재적 해석을 강조한 중문학 연구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전통의 미화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되지만, 한국한문 작품의 번역은 외국문학작품의 번역과 구별되는 가치를 지니므로, 해석적 관점에 충실한 번역부터 원전의 정밀한 이해를 제공하는 번역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번역 방식으로 직역/의역의 문제도 검토하고, 한국한시 번역의 실제 모델로, 직역의 경우, 음보율을 적용한 경우, 의역의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아울러 독자층의 분화와 능동성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번역을 제시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와 제안이 번역 현장과 상호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상 한문학 연구자에게 있어 번역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기본’이기에 소홀히 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김동준의 번역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한문 번역에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3. 연구영역의 확대

한문학 연구자로서 연구과정에서 접한 한문 기록 중에 다른 학문 분야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 그런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자가 주변에 있으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호기심이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데 200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주제가 몇 눈에 띈다. 김미혜·정혜경의 조선후기 漢詩에 나타난 음식문화 특성 : 紀俗詩를 중심으로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22권 5호)와 조창규의 衣服의 文化的 意味와 儒家 服飾의 意味原形(『東洋漢文學研究』24)이 그것이다. 또한 강혜선

의 조선후기 한시 속의 일상의 양태와 의미 -김려의 한시를 대상으로-」(『한국한시연구』15)에 수록된 김려의 한시에도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즉 한시나 한문산문의 기록을 통해서 음식과 의복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음식이나 의복 등은 조선후기의 일상성을 복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킨 소재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계 학문과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김태환의 孤雲의 鄉樂雜詠 第2首 <月顛>의 吟詠 對象과 그 性格 (『대동문화연구』60)은 한시의 해석을 문화사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성과를 보여준다. 즉 <월전>에서 읊은 내용을 연회사적으로 접근하여서 그 내용과 연회 방법, 연회 도구 등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한문학 분야의 연구성과이면서 연회사 분야의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간 학계간 연구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전통적인 인문학 범주에 속하는 학문끼리의 소통 외에도 음악·미술 등의 예술 분야, 지리·군사·의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 자료의 주고 받기, 또는 관련 논문을 인용하는 식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맺으며

이상 2007년도 연구 논저를 개괄하고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한 해에 관련 논문이 500여편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모든 논문을 살펴보지 못한 채, 필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점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중요한 논문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일상의 다양한 양상 구명과 일상성을 비롯한 미시사에 대한 반성, 둘째 ‘주체와 타자’의 논의의 정리와 이에 대한 비판, 셋째 글쓰기와 언어와 번역에 대한 반성, 넷째 한문학의 연구영역의 확대와 학계간 연구 필요성 등이다.

특히 ‘주체와 타자’ 관련 논쟁에서 지적되었던바, 선학의 기존연구를 비판하되 그 성과마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선학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여 구축한 거시적인 구도에 비판을 가할 때마저도 그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이라는 연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문학 연구도 항상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었을 때 보다 의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자기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08.
 ———,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08.
 ———, 『농암잡지평석』, 소명출판, 2007. 08.
 ———,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08.
 ———,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푸른역사, 2007. 10.
 고재현 저, 김대현 역, 『(譯註)志山遺稿』,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김갑기, 『삼한시귀감』, 이화문화출판사, 2007.
 ———, 『漢詩로 읽는 우리 문학사 : 한국 한시 산책』, 새문사, 2007.
 김건곤 외, 『고려시대의 문인과 승려』, 파미르, 2007. 03.
 김경미, 『박제가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2007.
 김명호,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돌베개, 2007.
 김정환, 『梅泉詩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김창룡, 『가진문학론』, 박이정, 2007.
 동방한문학회 편, 『한국한문학의 이론 : 산문』, 보고사, 2007.
 박병련 외,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박희병 외 편역, 『연암산문 정독 : 譯注·考異·輯評』, 돌베개, 2007. 07.
 박희병, 『거기, 내 마음의 산골마을』, 그물코, 2007. 07.
 박희병, 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천년의 우리소설1)』, 돌베개, 2007. 09.
 ———, 『낮선 세계로의 여행(천년의 우리소설2)』, 돌베개, 2007. 09.
 ———,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천년의 우리소설3)』, 돌베개, 2007. 09.
 백원철, 『한국학 탐구의 시각』, 보고사, 2007.
 성당재, 『藥泉 南九萬 文學 研究』, 한국학술정보, 2007.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한학입문』, 황소자리출판사, 2007.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02.
 ———, 『조선의 프로페셔널 : 자신이 믿는 한 가지 일에 조건 없이 도전한 사람들』, 휴머 니스트 2007. 04.
 윤호진 편역, 『(한시로 읽는 세시풍속)한 해가 끝나는 날 밤에』, 민속원, 2007.
 ———, 『(한시로 읽는 세시풍속) 팔죽 쑤어 나눠 먹고』, 민속원, 2007.
 이남규 저,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신편 국역) 수당 이남규 문집』 1-4, 한국학술

정보, 2007.

이병한, 『땅 쓸고 꽃잎 떨어지기를 기다리노라 : 한시365』, 궁리출판, 2007.

이상돈, 『조선의 口碑漢詩, 口碑短文의 해설』, 월인, 2007.

이숙희, 『(國譯)黃綠此集 : 綠此 黃五의 文學 研究』,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20세기 근현대 호남 한문학 자료 수집 및 연구팀 저,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景仁文化社, 2007.

이용휴 지음, 조남권, 박동욱 옮김, 『혜환 이용휴 산문 전집 上,下』, 소명출판, 2007.

이종건, 『조선 시대 한시 비평 :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제이앤씨, 2007.

이창룡,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남도의 시경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사, 2007.

이장우, 장세후 옮김, 『퇴계시 풀이』 1~5,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7.

이중환 지음, 허경진 옮김, 『택리지 : 당쟁의 상처를 딛고 조선 팔도를 누비다』, 서해문집, 2007.

이화한문학회 편,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임형택 편, 『李朝後期 閩港文學叢書 1~10』, 다른생각, 2007. 01.

임형택,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2007. 10.

장정룡, 『허난설현 평전 : 불꽃같이 짧은 생애의 찬란한 시문학』, 새문사, 2007.

장효현 외 저, 『家庭家門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_____. 『夢遊錄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02.

_____, 『愛情世態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02.

_____, 『英雄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02.

_____, 『寓言寓話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02.

_____, 『傳奇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02.

전관수 편저, 『漢詩 作家·作品 事典 :漢詩 810人選』 上-下, 국학자료원, 2007.

정민, 『스승의 옥편』, 마음산책, 2007. 02.

_____,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 조선 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 휴머니스트 퍼블리싱 컴퍼니, 2007. 02.

_____, 『다산어록청상』, 푸르메, 2007. 09.

정용희 엮음, 『(김삿갓과 한시에 대한)국제학술 심포지엄』,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 조남권, 이진오 편역, 『韓國古典批評論, 2: 朝鮮中期·後期』, 민속원, 2007.
 진재교 외, 『충돌과 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 근대전환기 동아시아의 자기인식과 대외 인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최응권, 『북한의 고전한시 연구』, 푸른사상사, 2007.
 한보광, 임종욱 편, 『한국문집소개 불교관련 시문 자료집』 1-5, 이회문화사, 2007.
 함종임, 『채륜: 난설현 허초희』, 푸른사상사, 2007.

2. 학위 논문

<박사학위논문>

- 구분현, 「동악 이안눌 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권혁명, 「16세기 식영정 시단의 시세계 연구: 임억령·양응정·김성원·정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봉남, 「다산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변모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종순, 「최송설당 문학연구」, 한성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형섭, 「한남 이복휴의 역사의식과 역사산문」,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민복기, 「도곡 이의현 산문비평의 연원에 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7.
 박경신,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박동욱, 「혜환 이용휴의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부영근, 「조선시대 제주 관련 한시의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7.
 서한석,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신영주, 「17세기 문인들의 趣의 구현과 서화금석에 대한 관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윤지훈, 「18세기 農巖系 文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 雪橋 安錫傲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7.
 이병순, 「조선후기 문인들의 前後七子에 대한 대응 양상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7.
 이현일, 「紫霞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7.
 이홍식, 「沈澣 洪吉周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07.

임상석, 「근대계몽기 잡지의 국한문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전병철, 「대산 이상정 성리설의 회통적 성격」,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07.
 정훈식, 「洪大容의 燕行錄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7
 최윤정, 「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 : 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최종호,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7.
 황정연,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7.

<석사학위논문>

장지옥, 「병곡 권구의 『대학』 해석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7.
 공광성, 「嶧陽 文景虎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7.
 곽은정, 「어우 유몽인 한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구봉근, 「申觀海眼의 시문학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7.
 권경순, 「玉樹記 연구 - 결연 양상과 서술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7.
 권진욱, 「택당 이식의 변문·고문 연찬과 산문 창작의 실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성훈, 「『東文選』 소재 箴銘類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인규, 「담녕 홍의호 『단구잡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정은, 「白雲 沈大允의 시경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지영, 「漢源 盧兢 漢詩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진숙, 「연암 산문의 글쓰기 방식 이해와 교육적 활용」,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진홍, 「간옹 이현경의 생애와 시세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혜운, 「허초희 한시의 소재론적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7.
 남봉우, 「임재 강재항 한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7.
 도명순, 「유협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7.
 류재화, 「修巖 柳軫의 文學 研究」,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맹영일, 「국포 강박의 생애와 한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문성신, 「한당유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혜승, 「진정국사의 『호산록』 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복대형, 「『좌씨전』 사평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송호변, 「정조의 易學觀과 『周易』 해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신경훈, 「경허 성우의 시세계 연구」, 창원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신요한, 「壺山 朴文鎬의 고문론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유영혜, 「굴산 이유원 연구: 문화, 예술 취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소라, 「수당 이남규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제인, 「한국 寺刹題詠詩의 一局面 - 三寶寺刹의 경우」,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유은지, 「문학관을 활용한 문학 진흥 방안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7.
- 이수희, 「淡'자류 평어 시의 특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은영, 「조희룡의 척독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주미, 「조선 후기 여성인물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효원, 「許穆과 荻生徂徠의 尙古主義 문학사상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임미정, 「松谷 李瑞雨의 시문학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장인자, 「姜靜一堂의 문학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정두호, 「眉山 韓章錫의 고문론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재욱,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조만식, 「사명당 시에 나타난 삼교회통적 사유」,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조승애, 「『포의교집』에 나타나는 근대성 연구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 四郎)』와 연관하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조 호,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과 오경재의 『회주부열부순부』 비교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 탁현숙, 「다산 정약용의 유배서간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 황아영, 「이옥의 '유기'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김민정, 「龜峰 宋翼弼의 濂洛風詩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윤정, 「하려 황덕길의 『동원학칙』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류경옥, 「이옥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금오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문정언, 「기사유형으로 본 『보한집』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근노, 「약포 정탁의 문학에 나타난 우국의식 : 상소활동과 입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미분, 「항해 홍길주의 독서론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지은, 「택당 이식의 기행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희수, 「난고 김병연 시 연구 : 해학성과 과격성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성원철, 「小山 金琦浩 문학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손현경, 「김삼의당의 시세계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신명주, 「<관동별곡>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집록 한시문과의 관련 양상과 그 의미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오승준, 「농암 김창협 의 기문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왕소명,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우명희, 「조선시대 남성 문인 규원시 연구 : 16세기를 전후로 한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우승희, 「조선후기 제망실문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유기철, 「혜산 이상규 시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민경, 「16세기 사립과 문인의 성리학적 이념 보급과 『오류전전』」,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혜선, 「전기적 산문의 문학 교육적 의의와 교수방법 연구 : 「김현감호」를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홍석, 「조희룡의 『壺山外記』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민경, 「이옥 전의 작가의식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혜옥, 「『금오신화』와 『가비자』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전병재, 「연암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선진사상 연구」,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길자, 「김삼의당의 문학작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정기간행물 소재 논문

간호윤, 「『閒汨董』 所載 <韋生傳> 研究」,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회, 2007.

강구을, 「深齋 曹兢變 詩世界의 諸樣相 研究」, 『嶺南學』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강동욱, 「한말 영남학맥과 심재의 역할」, 『嶺南學』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_____, 「심재 조공섭의 남명학 계승의 일단면」, 『선비문화』 11, 남명학연구원, 2007.
- 강명관, 「節婦, 烈婦, 烈女」,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강민경, 「한국 도가시의 유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강민구, 「『松南雜識』 <稽古類>에 대한 연구」,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06.
- _____, 「우리나라 중세 士人의 "우리말"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강병수,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단군조선 인식 : 『성호사설』 · 『동사강목』 기사를 중심으로」, 『仙道文化』 2, 仙道文化研究院, 2007. 02.
- 강석중, 「雪蕉 崔承太의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강소영, 「企齋 申光漢의 漢詩 小攷 - 寓居期 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강영숙,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과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10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강정화, 「16세기 遺逸의 山水認識과 文學的 表出樣相」, 『남명학연구』 2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_____, 「19세기 강우지역에 불었던 남명학 열풍」,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2007.
- 강지희, 「梅月堂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의推移」,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강현경, 「『寄夢軒集』의 작자 연구 : 『鰥夢寡記』의 작자 추정과 관련하여」,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 강혜선, 「조선후기 한시 속의 일상의 양태와 의미 - 김려의 한시를 대상으로 -」,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신유한의 『해유록』 다시 읽기」, 『문헌과 해석』 41, 문헌과해석사, 2007.
- 곽낙현, 「李德懋의 生涯와 武藝觀 - 『武藝圖譜通志』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 구사회, 「<관동별곡번사>의 역대 작품과 문예적 검토」,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 구본현, 「李安訥의 韓愈·杜甫 詩 학습의 실상과 의미」, 『한문고전연구(구성

- 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 「한국 제화시의 특징과 전개」,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 「許筠 詩論의 특징과 의미」,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구지현, 「“玉溜山莊詩話”의 특성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권경록, 「『斜川詩帖』에 나타난 문인들의 문학공간과 그 형상화」,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權文奉, 「『大學』 註釋을 통해 본 星湖의 經學」,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權政媛, 「李德懋의 家系와 交遊關係」,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권진호, 「寒岡 鄭述의 程朱學 受容樣相」,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권혁진, 「宋詩風の 漢詩 受容 樣相 研究 :고려 전기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34, 韓國中文學會, 2007.
- , 「海觀自集 研究」,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 「춘천지역의 경관을 노래한 한시 연구」,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김갑기, 「조선후기 寺刹題詠詩攷」,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김경집, 「조선후기 불교사상의 전개」,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김광섭, 「金陵 南公轍의 미식인식 과정과 문체적 특질에 대하여 -記文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 김근태, 「『太平廣記』 諺解本에 삽입된 漢詩의 기능 고찰」,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김기림, 「조선후기 여성묘지명에 나타난 서술 원리와 그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김낙진, 「藥圃 鄭琢의 程朱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김남기, 「金壽興의 삶과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 「여행을 통한 山水와 生活 空間의 認識」,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김남이, 「전환기의 관점에서 본 여말선초 사대부의 세계관과 문학론의 전개」, 『고전과 해석』 3,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 김대중,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대동문화연구』 60, 대

- 동문화연구원, 2007.
- _____,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탈성리학적 정치론 : 황종희(黃宗羲),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정약용」, 『韓國實學研究』 13, 한국실학학회, 2007.
- 김동준, 「번역학 관점에서의 한국한문문학작품 번역 재론 - 한시의 번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 _____,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 _____, 「李彦瑱 漢詩의 실험성과 『衡衡居室』」,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李用休 漢詩와 이언진 漢詩의 대비론」,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김명순, 「기속시의 성격과 조선후기의 양상」,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김명호, 「朴珪壽의 『孰遂念行』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12.
- _____,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 김문식, 「『동국문헌비고』 '禮考'의 자료적 특징」,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 김미란, 「조선시대 王后 傳記文 연구」,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_____, 「조선시대 後宮 傳記文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김미령, 「서사작품에 나타난 애정모티프의 변화양상과 현실대응방식 -<수삽석남>, <이생규장전>, <주생전>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학회, 2007.
- 김미선, 「大菴寺 禪僧의 詩世界」,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_____, 「常山 通山別業의 題詠詩攷」,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5,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 2007.
- 김미혜, 정혜경, 「조선후기 漢詩에 나타난 음식문화 특성 :紀俗詩를 중심으로」,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22권 5호, 韓國食生活文化學會. 2007.
- 김보경, 「南玉의 次三淵雜詠에 나타난 특성과 의미」,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牧隱 李穡의 버들골살이와 시」,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 김석태, 「月渚 道安의 山居詩 연구」,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학회,

2007.

- 김선기, 「『三國遺事』 鄉歌記術文의 詩話的 照明」, 『語文研究』 54, 語文研究學會, 2007.
- 김성기, 「洪錫箕의 連詩 연구」,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2007.
- 김성룡, 「心性論의 전개와 道文一致의 문학사상」,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김성수, 「史記를 통해 본 公無渡河歌의 작품 배경 位置考」, 『대동문화연구』 60, 대동문화연구원, 2007.
- , 「李荇 <哀朴仲說辭>의 장르考」,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5,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김성연, 「남구만의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 「白洲 李明漢의 館閣風 漢詩 연구」,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 「춘정 변계량의 관각풍 한시에 대하여」, 『石堂論叢』 38,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2007.
- 김성진, 「『瑣尾錄』을 통해 본 士族의 문화생활 -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김수영, 「연암 박지원의 <徐常修에게 輪回梅사라고 보낸 편지>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 김승룡, 「이재 황윤석 연구의 추이와 과제 - '실학'에서 '일상'으로」,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김승호, 「조선후기 野談에 나타난 僧의 類型과 그 의미」,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김영숙, 「退溪의 六友詩 類型에 따른 詩의 形象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 김영주, 「晚靜堂 徐宗泰의 文學論 研究」,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김영진,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김용남, 「漢源 盧棘과 그의 小品文 一攷」,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2007.
- 김용철, 「초기 사림파의 자기 형상」,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김용태, 「임오군란기 韓中 문인의 교유 양상」,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 「"茶山學團" 시문학의 실학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 김우정, 「선조·광해 연간 文風의 변화와 그 의미 : 前後七子 수용 논의의 반성적 고찰을 겸하여」,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김우형, 「澗松 趙任道の 학문과 사상 - 旅軒 張顯光과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 김원준, 「耘谷 元天錫의 紀行詩 探討」,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2007.
- 김윤섭, 「金時習의 佛敎詩에 관한 小考 : 四遊錄 創作期の 詩들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김윤조, 「『고운당필기』 연구 : 諸 異本에 대한 검토」,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_____, 「『古芸堂筆記』 연구 : 신발견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12.
- _____, 「柳得恭의 시조 漢譯」, 『문헌과해석』 40, 문헌과해석사, 2007.
- 김인희, 「張心學의 「文鯨傳」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김은정,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_____, 「『顯宗講書院日記』와 『顯宗東宮日記』 연구 - 왕실 교육의 실상과 변화」, 『규장각』 3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김정민, 「松江의 漢詩 研究 - 自然 素材를 中心으로」,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 김재임, 「임윤지당의 性理論을 통해 본 人間學 구조」,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김정민, 「송강의 한시 연구 :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36, 中央語文學會, 2007.
- _____,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한자한문교육』 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 김종서, 「16세기 湖南詩의 美的 特徵」,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批評 樣相」,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朴彭年의 文學과 精神」,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김종철, 「茶山 "箴銘" 文類의 문체특성」,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김주수, 「율곡 시의 원전 비평 - 遠接使 때의 차운시들에 대해서」,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김주필, 「19世紀末 國漢文의 性格과 意味」, 『震檀學報』 103, 震檀學會, 2007.
- 김준형, 「최민열본 『天倪錄』의 국역 양상」,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_____, 「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세 여인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
- 김진경, 「『海東辭賦』의 收錄 作品 樣相과 編纂의 志向性」, 『한자한문교육』 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 김진균, 「深齋 曹兢變의 道德文章 추구 논리」, 『嶺南學』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김철범, 「조선 지식인들의 諸子書 독서와 수용양상」,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靑泉 申維翰의 문장학습법과 글쓰기론」,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김태년, 「鶴沙 金應祖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 김태환, 「孤雲의 「鄉樂雜詠」 第2首 <月顛>의 吟詠 對象과 그 性格」, 『대동문화연구』 60, 대동문화연구원, 2007.
- 김풍기, 「지식의 재구성 과 김시습의 법화경 읽기」,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_____, 「허균의 불교적 사유의 형성과 <山狗偈>」,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김하라, 「고부갈등에 대한 착잡한 시선 -심대운의 「祭姪女文」 분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김형석, 「송유들의 노장인식의 두 가지 양상 -형이상학적 자연인식(우주 본체론)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김형술, 「槎川詩에 담긴 웃음의 美學」,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김형중, 「金笠의 作品性向 研究」,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2007.
- 김혜숙, 「南龍翼 시의 言語驅使에 대한 管見」,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김효립, 「허난설현의 작품에 투영된 대립적인 공간 -<궁사>와 <유선사>를 중심으로」,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나경수, 「영재 유득공 『경도잡지』의 민속문화론적 가치」,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나중선, 「玄谷 柳永善의 哲理詩 研究」,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乃菴 崔左海와 그의 經學」,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남미혜, 「17세기 중엽 조선 승려의 이국 체험 - 『谷雲集』 소재 <법성전>의 표
유기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8, 동양고전학회, 2007.
- 남은경, 「조선전기 독서경향과 『戰國策』」,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
會, 2007.
- 남재철, 「李德懋 詩에 나타나는 奇詭尖新의 美學」,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
시학회, 2007.
- _____,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
학회, 2007.
- 류준경, 「미발표 한문소설 『宗生傳』에 대하여 : 전기소설적 특성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텍스트 성격과 여성문학사적 가치」, 『한국
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
- 맹영일, 「국포 강박의 애도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문범두, 「濯纓 金駟孫의 <續頭流錄> 攷」,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 문재윤, 「조선조 왕실의 “齊家”론과 그 정치적 함의」,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문희순, 「호서지역 여성 한문학의 사적 전개」,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
학회, 2007.
- _____, 「사회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韓國言語文學』
62, 한국언2007.
- _____, 「吳淸翠堂의 생애와 문학」,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
- 민복기, 「도곡 이의현의 반의고적 산문비평」,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
학회, 2007.
- 박경신, 「『정언묘선』과 栗谷의 風格」,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_____, 「栗谷의 文學論」,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
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박광용, 「『동국문헌비고』 편찬의 역사적 배경」,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 박동욱, 「李用休 한시의 과격적 구성과 실험성」,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
학회, 2007.
- _____, 「靜軒 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 : 흥량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溫知
論叢』 17, 溫知學會, 2007.

- 박명희, 「이재 黃胤錫의 시에 나타난 有機體의 자연관」,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박무영, 「『執遂念』의 공간 설계와 문학적 사유」,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박성진, 「漢文古典 역주에 대한 한 모색 - 퇴계의 「後論」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7.
- 박세진, 「蛟山の 『記』 작품연구」,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5,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박수필, 「『象記』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 _____, 「18세기 지식인의 우정과 교유 양상 -이덕무와 박제가의 우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_____, 「用事와 패러디의 상관관계 고찰」,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_____, 「조선후기 언어 문자관의 토대와 전개 : 18세기 연암그룹 및 다산, 향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박수천, 「중남총지(終南叢志)의 비평양상(批評樣相)」,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白湖 尹鑄의 시문학」,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박영미, 「일제강점기 在朝日人の 漢詩 고찰 : 『以文會誌』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新體制와 親日 漢詩」,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
- 박영민, 「妓生の 한시, 사회적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서사」,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박영호, 「蓬谷 朴守弘의 삶과 시 세계」,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박용만, 「李玄煥의 <瀛洲唱和錄序> 改作의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박종훈, 「楚亭 朴齊家の 『竟信堂夾袋』 小考」,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楚亭 朴齊家の 「愁州客詞」 一考」, 『동양학』 4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 박준원, 「茶山の 經學 著述에 受容된 崔述의 考證學」,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박지현, 「도화가에서 어머니로: 신사임당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박철상, 「조선 金石學史에서 柳得恭의 위상」,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박현규, 「貴陽 是春谷에 각석된 朝鮮集句詩」,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 박현숙, 「한문단편 <驟雨>와 근대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관련양상」, 『韓國學研仁荷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7.
- 배규범, 「藏頭體 漢詩의 양식과 주제 의식 : 佛家 藏頭體를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22, 한국시가학회, 2007.
- 백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
- 백승중, 「한문학과 미시사의 풍요로운 만남」,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변동명, 「金台鉉의 『東國文鑑』 편찬」,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2007.
- 부유섭·강문중, 「『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서신혜, 「〈貨殖傳〉의 物質觀이 우리 文人의 意識에 끼친 影響의 한 예, 曹鳳默의 <孔方傳〉」, 『어문연구』 1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외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서정화, 「이규모 送序의 서술 양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서현경, 「연민선생과 『열하일기』 번역」,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성기각, 「문집 소재 민요 관련 한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민요의 가창방식」, 『배달말』 40, 배달말학회, 2007.
- 성범중, 「魯西 尹宣學의 생애와 시세계」,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손혜리, 「당주 朴琮의 <白頭山遊錄> 연구」,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_____, 「18세기 서사양식의 교섭양상에 대하여 : ‘江上孝女’를 대상으로 한 작품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성해응의 삶과 교유, 그리고 예술적 감성」, 『문헌과 해석』 41, 문헌과 해석사, 2007.
- 송병렬, 「韓國의 漢文文化和 漢文教育」,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송진한, 「우리의 고전적 글쓰기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

- 신두환, 「西厓 柳成龍의 性理學과 文藝美學에 관한 談論」,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朝鮮 士人の <武夷權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_____, 「息山 李萬敷의 教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신로사, 「이현의 생애와 문학론에 관한 소고」,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신상필, 「日帝時期 野談大會의 현장」,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신상현, 「18세기 韻書 編纂과 清代 古音學 受容 研究 : 특히 『奎章全韻』 편찬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 『嶺南學』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_____, 「深齋 曹兢燮의 思想과 經學에 관하여 - 經學的 言述에 대한 評價를 곁하여」,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_____, 「壬丙兩亂과 轉換期文學의 多邊化樣相 : 芝峯 李晬光의 文學論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 _____, 「禮學의 관점에서 본 선비의 日常」,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획 활동과 계획도축」,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仁興君 李瑛의 일상과 『月窓夜話』」,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신지연, 「茶山の 『大學』 에 대한 觀點과 解釋」,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5,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신태영, 「訥齋 朴祥의 賦 研究 -유가적 층의와 장자적 초탈」, 『은지논총』 17, 은지학회, 2007.
-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 -특히 『管子』와 『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 _____, 「浦渚 趙翼의 문학관과 문학」,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 심호택, 「廣開土王陵碑文의 構造」,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안나미, 「月沙 李廷龜의 燕行詩 一考察」,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안대회, 「조선 후기 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金鑑의 野史 정리와 『寒臯觀外史』의 가치」, 『문헌과 해석』 39, 문헌과 해석사, 2007.
- 안득용, 「谿谷 張維 樓亭記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 _____,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碑誌文의 典範과 서술 양상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16세기 후반 嶺南 文人의 山水遊記 - 芝山 曹好益 산수유기에 나타난 자연인식과 형상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5, 민족어문학회, 2007.
- 안민정, 「拙修齋 趙聖期論」,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 안세현, 「柳夢寅의 「遊頭流山錄」 연구 - 지리산 遊記의 전통과 관련하여」,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_____, 「柳夢寅의 贈序類 散文 研究」,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안영훈, 「『逸士遺事』의 『壺山外記』·『里鄉見聞錄』 수용 양상」, 『語文研究』 35-4, 통권134호, 韓國語文教育硏究會, 2007.
- _____, 「14세기말 사대부 交遊詩의 한 양상 : 李穡·鄭樞·韓脩의 교유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 <俛仰亭三十詠>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 _____, 「조선시대 왕의 팔경 향유 양상」, 『東洋學』 42, 東洋學硏究所, 2007.
- 양언석, 「蛟山の 정체성 考察」,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 양우뢰, 「李廷龜의 詩文을 통해서 본 明代 中·韓 文化交流」, 『동방학지』 13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 엄경흠, 「羅末 日本通信使의 使行과 送詩」,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여운필, 「汾崖 申晷의 詩世界」,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韓國의 詩案에 대한 考察」,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오세경, 「『금오신화』에 나타난 현실세계와 상상세계의 교섭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2007.
- 옥영정, 「『동국문헌비고』에 대한 서지적 고찰」,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 왕경운, 「新羅崔致遠羈泊山東半島詩文創作考」,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용환진, 「竹西樓 題詠 漢詩의 意味表出 樣相」,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 강원문화연구소, 2007.
- 원주용, 「麗末鮮初 牧隱 散文의 글쓰기 영향에 대한 고찰 : 註疏語錄體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_____, 「『養氣』를 통해 본 麗末鮮初 文人들의 意識에 관한 一考察」,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陶隱 散文의 文藝的 特徵」,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유권석, 「『海衣國史』 研究」,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2007.
- _____, 「『담원문록』 所在 人物傳 연구」,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劉大軍, 「선조 주자소의 설립과정과 그 활동」,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 유병상, 「『矩堂詩鈔』를 통해 본 兪吉濬의 歷史認識」,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劉永奉, 「潘溪 兪好仁이 남긴 『續匪懈堂四十八詠』과 몇 편의 ‘謠’에 관해」,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유영욱, 「陵參奉職 수행을 통해 본 頤齋 黃胤錫의 仕宦의식」,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유호선, 「陽明學者 李忠翊의 佛敎觀 一考」,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유호진, 「金守溫 詩에 나타난 鮮初 詩風의 變化」, 『고전과 해석』 3,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 _____, 「栗谷 시의 이미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 _____, 「朝鮮中期 道學詩와 生態學的 想像力」,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_____, 「金守溫 詩에 나타난 鮮初 詩風의 變化」, 『고전과 해석』 3,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 윤선태,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윤인현, 「『桂苑筆耕集』 所載 崔致遠의 漢詩 小考」, 『韓國古典研究』 15, 韓國古典研究學會, 2007.
- 윤재환, 「茶山 詩의 흥취와 서정의 객관화 -강진 移配 이후의 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2007.
- _____, 「소론계 시문학 경향의 계승과 변모: 椒園 李忠翊家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 _____, 「醉琴軒 朴彭年의 散文에 나타난 意識世界와 具顯 樣相」,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_____, 「茶山 社會詩의 性格 變化 檢討」,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2007.
- 윤 정, 「正祖의 『大學類義』 편찬과 『聖學輯要』」, 『남명학연구』 2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_____, 「鄭仁弘의 程朱學 이해: 晦退辨斥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윤지훈, 「18세기 筆記의 一樣相 考察 - 『삼교만록』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윤채근, 「동아시아 문화정체성과 한자·한문교육 :문화적 탈식민화와 창조적 혼종성」,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윤호진, 「淵民先生의 ‘法古創新’論이 學界에 미친 影響 및 그 餘波」,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이강욱, 「박종채 『과정록』의 내용 형성과 글쓰기 방식」,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이경수, 「영재 柳得恭의 詩의 神韻風과 考證學的 傾向」,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_____, 「再思堂 이원의 生涯와 詩世界」,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金壽增의 生涯와 詩世界」,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삼연 김장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이경하, 「亡室行狀類 연구」, 『韓國文化』 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이관성, 「海藏 申錫愚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미수 이인로의 시세계 연구의 일단」,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이구의, 「臺巖 최동집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이군선, 「朝鮮 士人의 言語文字 認識」,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이기현, 「19세기 중·후반의 척독집 수용과 편찬」,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이대형, 「樗湖隨錄의 撰者와 異本」,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이동재, 「퇴계 兪好仁의 「東都雜詠」 詩 一考」, 『한자한문교육』 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 _____. 「梅溪 曹偉의 “遊松都”詩 研究」,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이동환, 「東北工程에의 대응, 한문학의 입장」,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이병찬, 「良齋 田愚의 시 연구」, 『語文研究』 54, 語文研究學會, 2007년.
- 이상미, 「龜峰 宋翼弼의 道家的 性格 考察」,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이상성, 「寒暄堂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 이상필,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 -<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남명학 연구』 2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이상하, 「貫道·載道·道文一致의 상호관계 및 개념·성격 再考」,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이성민, 「汾西 朴瀾의 <西京感述>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 _____. 「秦漢古文派의 성립 배경과 秦漢古文에 대한 인식」,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이수진, 「새로 발굴한 이율곡의 <同居戒辭>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 이승수, 「『水滸傳』 林冲 서사의 金聖嘆 讀法」,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새로운 세계의 탐색, 문학과 여행 -朴齊家の 燕行 漢詩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_____. 「深河戰役의 현장 답사 연구」, 『한국학논집』 4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 이연숙, 「한일 고대 한시의 성격 비교 연구」, 『比較文學』 43, 韓國比較文學會, 2007.
- 이영남, 「정다산과 청대학자 고염무의 문학관 비교」, 『開新語文研究』 25, 開新語文學會, 2007.
- 이영호, 「舫山 易學의 특징과 그 易學史的 位相」,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東岡 김우옹의 朱子學 수용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이은영, 「한문 산문에 투영된 어머니 -18세기 八母 服制 담론과 어머니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_____. 「君臣과 師弟의 경계에서 : 『梧墅遺稿』 소개 <講義>를 통해 본 19세

- 기 제왕 교육의 내면」,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2007.
- 이은주, 「何山 崔孝騫論」,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이은혁, 「秋史 書論 研究 -門徑論을 中心으로」,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_____, 「秋史 書論과 學書門選論」, 『한문교육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李義康, 「梅溪 曹偉 漢詩의 문예미학적 성취」,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이재숙, 「容齋 李苻의 초월과 관조의식 양상」, 『語文研究』 54, 語文研究學會, 2007.
- _____, 「容齋 李苻의 현실비판의식과 그 형상화」,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이재일, 「이황의 田園詩文의 자유지향성에 대한 미학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이정규, 「詩·文에 나타난 李萬敷의 歷史認識」,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 이정화, 「西厓 柳成龍의 삶과 시세계의 변이과정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이종묵, 「松江의 五言絶句에 대하여」, 『韓國詩歌研究』 22, 한국시가학회, 2007.
- _____,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39, 문헌과해석사, 2007.
- _____, 「버클리대학 소장 員嶠集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38, 문헌과해석사, 2007.
- _____, 「유본정의 『梅史本末』」, 『문헌과해석』 39, 문헌과해석사, 2007.
- _____,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震檀學報』 104, 震檀學會, 2007.
- _____, 「李應禧가 시로 쓴 백과사전 <萬物篇>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이종문, 「燕巖 朴趾源의 漢詩에 關한 한 考察」,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이종찬, 「조선 중후기 儒·佛 詩人의 交涉樣相」,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이종호, 「지역 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壯洞金門의 隱遁地(外圃) 經營과 金昌翁의 隱逸意識 -梅月堂과 谷雲이 간 자리에 三淵이 등지를 틀다」,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이지양, 「17세기 조선의 한문학에 나타난 음악과 무용 풍속」,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이채경, 「洪慎猷 敘事漢詩 研究」,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이학당, 「연암그룹 문학비평의 특징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이향배, 「恕菴 申靖夏의 詩評에 대하여」, 『語文研究』 53, 語文研究學會, 2007.
- 이현홍, 「<박문수전>,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이현일, 「李匡呂의 實心實學과 經世學」,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 이혜순, 「18세기 "父在爲母" 담론과 모성 인식」, 『대동문화연구』 59, 대동문화연구원, 2007.
- 이 훈, 「再思堂 李龜의 산수 유람관과 『遊金剛錄』 연구」,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이희목, 「小訥 盧相稷 漢詩 研究」,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李健昌의 「伯夷列傳批評」 評釋」, 『대동문화연구』 60, 대동문화연구원, 2007.
- 임기환, 「고구려 文字, 言語 자료의 현황과 과제」,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임유경, 「조선후기 역사·전기문학의 후대 계승 : 근대계몽기 인물기사와 관련하여」,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임종찬, 「시조의 漢詩譯과 漢詩의 時調譯의 문제점 연구」, 『時調學論叢』 27, 韓國時調學會, 2007.
- 임종진, 「深齋 曹兢燮의 修養論」, 『嶺南學』 1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임준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임채명, 「朝鮮의 對日 教化樣相과 그 基底 -朝鮮前期의 詩文을 중심으로-」, 『동양학』 4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 임형택, 「『牧民心書』의 이해 : 다산 정치학과 관련하여」, 『韓國實學研究』 13, 한국실학학회, 2007.
- 장병한, 「19세기 惠岡 崔漢綺와 白雲 沈大允의 氣學 比考」, 『한문학보』 16, 우

- 리한문학회, 2007.
- 장병한, 「潘溪 俞好仁의 儒學 工夫論과 實踐論」, 『한문학회』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장원철, 「발해 한시문학의 현황과 창작 경향」,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장유승, 「屈溪酬唱帖」, 『민족문화』 30, 民族文化推進會, 2007.
- _____, 「悲運의 王孫, 盛世의 宗親-海原君 李健의 生涯와 漢詩」, 『韓國漢詩作家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李克誠의 『螢雪記聞』 연구」, 『星湖學報』 4, 성호학회, 2007.
- _____, 「李種徽의 自國史 인식과 小中華主義」, 『민족문화사연구』 35,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 장진숙, 「『浮休子談論』에 나타난 成倪의 政治의 志向과 寓言의 化법」, 『어문연구』 13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전경원, 「다산 정약용의 四言詩와 詩經論 및 詩認識의 상관성」,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 정경주, 「朝鮮初期 感興詩의 文明과 眞樂」,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정경훈, 「五峯 李好閔의 詩文學 研究」,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5,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정규식, 「평강왕과 온달모를 중심으로 본 <溫達傳>」,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학회, 2007.
- _____, 「<金現感虎>에 形象화된 人間과 動物의 存在 方式」,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정만호, 「地域 漢文學 研究의 實相과 問題點」,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정 민, 「담배에 관한 최초의 저술, 李德履의 『記烟茶』」, 『문헌과해석』 38, 문헌과해석사, 2007.
- 정병삼,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48,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정병호, 「漢文小說 『柳五乘記』 解題 및 譯註」, 『嶺南學』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 정상균, 「정도전의 <詠梅>시 연구」,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2007.
- 정선희, 「朝鮮後期 小說批評論과 文藝美學의 發展 :金聖歎의 小說批評本 讀書와 관련하여」, 『語文研究』 35-1, 통권134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7.
- 진성운, 「<愁城誌>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語文研究』 54, 語文研究學

- 會, 2007.
- 정시열, 「西厓 柳成龍의 '說' 연구 : '說'에 나타난 西厓의 면모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旅軒 張顯光의 祭文 研究」,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학회, 2007.
- 정용수, 「『元生夢遊錄』의 문학과 조선시대 六臣의 인식」,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_____, 「『寒臯觀外史』의 체제와 일실된 작품들의 존재」, 『남명학연구』 2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정우봉, 「評批本 『古詩批評』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12.
- _____, 「이학규 산문의 내면 풍경」, 『문헌과 해석』 38, 문헌과 해석사, 2007.
- 정은진, 「豹菴 姜世晁의 書畫題跋 연구」,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정일남, 「박제가 詩味論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연행록의 관제묘 양상과 이미지」,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정진현, 「영재 유득공의 역사의식」,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정출현, 「16세기 사립과 문인의 문학사회학적 인식 지평과 문학생성 공간의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정학성, 「〈虎叱〉에 대한 재성찰」,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정후수, 「北京 刊 『恩誦堂續集』 출판 경위 - 『海隣尺素』 記事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 정훈식, 「『을병연행록』에 나타난 "技術" 관련 見聞」, 『한국문학논총』 46, 한국 문학회, 2007.
- _____,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조도현, 「〈주생전〉의 현실지향과 미학적 특질」,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
- 조동영, 「弘齋의 詩世界에 대한 一考察」,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조상우, 「息影亭記의 寓言 글쓰기와 文學史的 意義」,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_____, 『海鶴 李沂의 계몽사상과 諧謔의 글쓰기』,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 _____, 「李健昌의 <答友人論作文書>를 통해 본 글쓰기 전략」,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 _____, 「<布衣交集>과 <아내가 결혼했다>의 스토리텔링 비교 연구 - 남녀 주인공 意識의 수용과 변이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8, 동양고전학회, 2007.
- 조성덕, 「茶山 丁若鏞의 孝觀」,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조성산, 「옥소 권섭(1671~1759)의 학풍과 현실관」, 『東洋學』 41, 東洋學研究所, 2007.
- 조용호, 「근,현대 儒者들의 詩文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회, 2007.
- 조정윤, 「谿谷 張維의 記文 연구」, 『大東漢文學』 27, 大東漢文學會, 2007.
- 조창규, 「衣服의 文化的 意味와 儒家 服飾의 意味原形」,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조창록, 「迂齋 趙持謙의 생애와 直道孤忠의 시」,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 조태성, 「<要路院夜話記> 소개 삼입시의 성격과 기능」,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2007.
- 조항덕, 「『經濟文鑑』에 나타난 三峰 鄭道傳의 政治思想」, 『한문고전연구(구. 성신한문학)』 14,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2007.
- 조현우, 「『文以載道』의 매체론적 이해」,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조희정, 「중세의 '나에 대한 글쓰기' 연구 : <동문선>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주영아, 「西溪 朴世堂의 『效愛惡箴』 읽기 -애오잡과 대비적 글 읽기-」, 『은지논총』 17, 은지학회, 2007.
- _____, 「西溪가 보는 陶淵明과 金時習의 實體 - 『西溪集』을 중심으로」, 『동방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주재우, 「고전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우언문학교육 : 성현의 『浮休子談論』 우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_____, 「類推를 통한 설득 표현 교육 연구 - 『동문선』 소개 "說" 양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 주호찬, 「無字話頭와 관련된 頌古와 悟道頌」,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진재교, 「李朝 後期 筭記體 筆記 研究 : 지식의 생성과 유통의 관점에서」, 『韓國漢文學研究』 39,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19세기 京華世族의 讀書文化」,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漢詩에서의 社會相, 그 안과 밖의 모습들」,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최경열, 「한문번역에 대한 몇 가지 견해 : 『한비자』 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28, 韓國漢文教育學會, 2007.
- 최경춘, 「豹菴 姜世冕의 書藝論 一考」,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최경환, 「多人 創作 題畫詩와 다르게 하기의 作法 - 姜世冕과 李壽煥의 「七灘亭十六景圖詩」 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24, 동양한문학회, 2007.
- 최석기, 「南塘 韓元震의 『中庸』 解釋 方法과 그 成果」,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四未軒 張福樞의 『中庸』 解釋과 그 意味」, 『어문론총』 47, 한국문화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07.
- _____, 「鳳村 崔象龍의 學問性向과 經學論」,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崔晟燁, 「正祖의 詩觀에 대한 考察」,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최 식, 「홍길주의 꿈과 『孰遂念』」,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 _____, 「홍길주의 실험적 글쓰기」, 『東洋漢文學研究』 25, 동양한문학회, 2007.
- _____, 「고증학과 홍길주의 <擬發策>」,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 崔英成, 「韓國金石學의 성립과 발전 - 研究史의 整理」,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 _____, 「秋史 金石學의 再照明 - 史的 '考證' 문제를 主眼目으로」,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 _____, 「南冥 曹植의 程朱學 受容樣相 - 二程과 관련하여, 『학기유편』 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4,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최원경, 「조선후기 문학 속에 나타난 가상의 공간과 미메시스」,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孰遂念』 연구의 한 시각」,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 최유진, 「靑泉 申維翰 漢詩의 『楚辭』 受用樣相」, 『동방한문학』 33, 동방한문학회, 2007.
- 최윤정, 「西溪 朴世堂 文學의 연구 : 實質 지향성과 인식적 한계를 중심으로」,

- 『語文研究』 35-2, 통권134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7.
- _____, 「西溪 朴世堂의 佛敎觀과 佛僧과의 교유 양상」,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 최은주, 「朝鮮後期 『濂洛風雅』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최정준, 「晩悔堂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년.
-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古詩歌研究』 19, 한국고시기문학회, 2007.
- 최지녀,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치악한문교육연구원, 「耘谷 元天錫의 삶과 얼을 찾아서」, 『강원문화연구』 2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 하정승, 「崔瀟 시에 나타난 拙樸과 悲慨의 미」,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김삿갓 시에 나타난 悲慨와 飄逸의 정신」,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하지영, 「龜峯 宋翼弼의 예 담론과 그 의미 -庶母 논쟁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하혜정, 「『海東諸國記』 底本 연구」, 『동양고전연구』 28, 동양고전학회, 2007년.
- 한규철,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한민섭, 「保晩齋 徐命膺 散文의 一考察 -易學 중심의 학문관과 관련하여」, 『한자한문교육』 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 _____, 「조선후기 家學의 한 국면 -徐命膺 일가의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4, 한국실학학회, 2007.
- 한영규, 「한말일제하 羅州儒林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 謙山 李炳壽(1855~1941)의 사례」, 『泮橋語文研究』 22, 泮橋語文學會, 2007.
- _____, 「추사의 말년제자 金奭準의 『研白堂初集』」, 『문헌과 해석』 40, 문헌과해석사, 2007.
- _____, 「조희룡의 『論畫截句』 창작과 그 비평적 특징」,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함영대, 「성호 이익의 『맹자질서』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구.성신한문학)』 15,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07.
- 한창훈, 「崔益鉉의 濟州 流配 漢詩 考察」,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2007.

- 허경진, 「『매창집』에 관련된 인물과 창작 시기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
- _____, 「『학산초담』의 이본 연구」, 『남명학연구』 2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홍학회, 「〈三賢手簡〉을 통해 본 이이와 성혼의 교유」,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 황위주, 「樂府詩의 개념과 양식적 특징」,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2007.
- _____, 「楚辭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선비문화』 11, 남명학연구원, 2007.
- _____, 「渤海 外交文書の 實狀과 그 文體的 特徵」, 『大東漢文學』 26, 大東漢文學會, 2007.
- _____, 「사미현 장복추의 한시세계」, 『어문론총』 47,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 황재문, 「『大東詩選』의 편찬경위와 문학사적 위상」, 『震檀學報』 103, 震檀學會, 2007.
- _____, 「나를 서술한 백농 조창용 산문의 성격과 의미」, 『정신문화연구』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小助川貞次, 「日本 漢籍訓点資料 研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研究』 18, 구결학회, 2007.